

## 중역에서의 보족어의 어순과 정보 구조\*

임환재(고려대)

### 1. 머리말

독어 문장에서의 중역은 틀구조의 내부로서 전역과 후역과는 달리 여러 가지 보족어들이 다양한 어순으로 나타나며 또한 복잡한 제약과 규칙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독어 어순 연구에 있어서 중역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역에서 보족어의 어순을 이상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다면, 먼저 문법적 조건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문법적 구조를 제외한 다른 구조가 정보 구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자는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방법론적 접근방식으로서 먼저 정보 구조와는 별개의 기본 어순으로부터 출발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탈현상들을 의사소통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먼저 중역에서 보족어들의 문법적 구조는 범주적 기준, 형태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 그리고 통사론적 기준으로 기본 어순이 결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어순은 고정된 어순과 유동적인 어순으로 나뉘고 있다. 어떠한 성분이 고정된 어순이며 어떠한 성분이 유동적인 부분인가는 독어 통사구조와 정보구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도 실용적인 단면을 제공해 준다. 지금까지의 어순 연구는 Duden-Grammatik, U. Engel 그리고 G. Helbig의 문법서 등에서 대부분 형태-통사론적 연구에만 치중되어 왔지만, U. Hoberg의 연구에서는 표현면의 연구와 더불어 내용면의 연구도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근의 성과이므로 우리는 Hoberg의 연구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중역의 어순에서의 기본어순은 맥락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텍스트 맥락과 상황에 변화를 겪게 되면 이러한 기본구조는 테마화되고 또한 레마화될 수

\* 본 논문은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있다. 한 문장에서 전달 가치를 나타내는 테마-레마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가는 인식론적 범주에 따라 또는 언어적 맥락과 결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맥락과 더불어 한 성분들의 전달가치는 일반적으로 정동사와 통사론적으로 또는 의미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순에서 나타난 문법적 구조와 정보 구조는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또한 발화체의 전달 기능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메카니즘을 고려하고자 한다.

## 2. 보족어의 어순

### 2.1 범주적 기준

U. Hoberg는 보족어의 어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먼저 범주적 기준을 들고 있다. 이러한 범주적 기준이란 문장성분들 중 먼저 순수한 논항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항보족어(Termkomplement= K+TRM)와 술어의 일부분이거나 반자율적 논항을 나타내는 비정항보족어(Nicht-Term komplement= K-TRM)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때 정항보족어란 전통적인 주어와 목적어(4격 보족어, 3격 보족어, 2격 보족어, 전치사적 보족어)를 말하며, 비정항보족어란 술어보족어와 장소의 부사적 규정어,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를 말한다. 술어보족어와 부사적 규정어는 사실상 별개의 부류이지만 이 두 개의 부류가 한 문장에서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비정항보족어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정항보족어와 비정항보족어의 이분법은 문장성분이 술어Prädikat와의 관계에서 의미론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다음은 정항보족어에 대한 예들로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보족어들 중 대부분은 정항들Term로서 논항들을 나타내고 있다.(Hoberg, 1997: 1065)

Sein ideenreicher Neffe verkauft jetzt alte Ackergeräte.

정향은 못되며 결코 대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보족어 중에서 몇몇 성분들은 상황을 상세화하여 장소, 방향 그리고 정도를 나타내며, 이들을 부사적 보족어라고 한다. 이러한 부사적 보족어는 동사와의 의미론적 관계에서 비교적 가까운 결속도를 나타낸다.

Damals wohnte seine Kusine **in der Nachbarstadt**.

Sie selbst flog zum ersten Mal **nach Ägypten**.

Der Wasserstand ist schon **um 60cm** gestiegen.

술어의 일부분으로서 반자율적인 논향을 나타내는 보족어를 술어보족어라고 한다. 이러한 술어보족어는 동사와의 의미론적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결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Man nennt das **einen Ziehbrunnen**.

Man hält mich für **einen gelehrten Mann**.

Er galt darum **als hochmütig**.

따라서 동사와의 의미론적 관계에서 비교적 가까운 결속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규정어와 가장 가까운 결속도를 나타내는 술어보족어를 비정향 보족어로 파악하고 있다. 일견 보기에는 정향보족어처럼 보이지만 술어의 논향으로 간주될 수 없는 명사적 성분과 전치사적 성분이 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명사적 또는 전치사적 성분을 가진 명사화 구문과 기능동사구문

Bescheid geben, Abschied nehmen, Vorbereitungen treffen, in Gang kommen, in Gang setzen, zum Ausdruck bringen,

b) 숙어(Phraseolexeme)

den Kopf hinhalten, ins Gras beißen, ins Bockshorn jagen, auf den Strich gehen,

c) 목적어가 융합된 술어

radfahren, Auto fahren, Ski fahren, Klavier spielen, preisgeben

이러한 어법이 정항보족어와 구별되는 경계기준은 고정되고 어휘화되며 관용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어법의 명사들은 대용어화될 수 없고 의문문에서 물을 수 없으며 관사가 고정되어 사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항 보족어들은 자유로운 정항 보족어와 달리 배어법에서 제약을 받는 위치성분들이다.

이렇게 하여 술어와의 관계에서 의미론적 결속도를 근거로 하여 구별되는 정항보족어와 비정항보족어의 구별은 배어법에서 매우 중요하여 최고의 상위 규칙으로 간주된다.(Hoberg, 1997:1508)

제1단계의 어순 규칙

무표의 중역 어순에서 정항보족어는 비정항보족어 앞에 위치한다.

K+TRM » K-TRM

- (1) Morgen werfen [wir]+TRM [Bomben]+TRM [auf das Rathaus]-TRM.
- (2) Dennoch halten [die meisten Fachleute]+TRM [sowjetische Sabotage]+TRM [für unwahrscheinlich]-TRM.
- (3) Gestern brachte [das Theater]+TRM [das Stücke]+TRM [zur Aufführung]-TRM.

정항보족어 » 비정항보족어라는 어순 규칙의 설명은 배어법 연구에서는 대체로 동사와 가까운 성분(Verbnähe) 또는 동사와 결속력이 강한 성분(Verbindung)은 배어법상으로는 동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다고 설명되며, 이것은 독어문장의 틀구조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비정항보족어로서 술어 보족어와 기능동사구문의 명사 또는 전치사군들은 속성상 동사와 가장 가까운 결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역에서의 끝자리를 차지하며 그 어순은 고정적이다.

(2') \*Dennoch halten die meisten Fachleute für sehr unwahrscheinlich sowjetische Sabotage.

(3') \*Das Theater brachte zur Aufführung das Stücke.

그러나 비정향보족어에 있어서의 부사적 규정어들은 정향보족어들처럼 논항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동사와의 결속도에서 비교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부사적 규정어으로써 동사의 의미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장소나 방향과 같은 매개변수가 상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사적 규정어는 일반적으로 정향보족어의 뒤쪽에 위치하지만, 이러한 어순은 술어 보족어처럼 그렇게 고정적인 것은 아니며, 특별한 의사소통적 상황 아래서는 그 어순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1') Morgen werfen wir auf das Rathaus Bomben.

보다 상세한 어순 규칙을 위해서는 비정향보족어도 하위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보다 나은 개관을 위해서 정향보족어 다음에 비정향보족어가 위치한다고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비정향보족어와 관련하여 우리는 B. Haftka의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에서 보족어들의 중요한 어순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Haftka, 1981:707 이하)

중역에서 보족어들의 기본 어순은 이들의 계층적 관계에 상응하며, 이러한 보족어들의 계층적 관계는 동사에 대한 통사론적 결속도의 상이한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Ⅰ는 수단의 부사적 규정어Ⅱ 보다 동사와 더욱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직접목적어 또는 간접목적어 그리고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Ⅰ과 수단의 부사적 규정어Ⅱ는 동사에 대한 이러한 결속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구성성분 구조에서의 서로 다른 위치를 통하여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Haftka는 보족어들의 기본 어순을 부정사를 이용하여 간단히 시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부정사군들 중에서

- (4) mit einem Füller einem Schüler **eine Note** in ein Heft schreiben  
 einem Jungen **ein Buch** geben
- (5) ?einem Schüler in ein Heft eine Note mit einem Füller schreiben  
 ?ein Buch einem Jungen geben

(4)의 구문들은 (5)의 구문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4)의 구문들은 어떠한 사전 언급도 전제되어 있지 않고 단 하나의 악센트 중심만을 가지며 그것도 부정사구문의 끝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5)의 구문에서의 의미있는 악센트는 개개성분들의 사전언급을 전제로 하며 그리고 또 다른 레마의 분포를 전제로 하고 있다

Haftka는 그녀의 시험에서 비한정명사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한정명사(정관사+명사군) 또는 대명사로 표시되는 성분들의 사전언급은 기본어순의 일정한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 (6) dem Schüler die Note mit einem Füller in das Heft schreiben  
 das Buch einem Jungen geben  
 es            einem Jungen geben  
 es            ihm            geben

따라서 부정사군 내에서 모든 구성성분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이러한 성분들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숫자 [1], [2], [3] 등을 계속 매김으로써 정동사[0]에 대한 구성성분들(Prädikatsgruppe-Konstituenten)의 통사론적 결속도라 부를 수 있는 매개변수를 얻을 수 있다.

[0] [11] [10] [9] [8] [7] [6] [5] [4] [3] [2] [1]

정동사는 숫자[0]으로 표기하며 이것과 계층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 양태 조동사[1]는 배어법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나타난다. 다음으로 정동사와 결속도가 높은 것은 본동사[2], 그 다음은 분리전철[3], 다음으로 가까운 술어보족어[4] 그리고 방향의 부사적 보족어[5 - 6], 목적어의 장소를 나타내

는 부사적 규정어[7], 직접목적어[8], 간접목적어[9], 양태, 수단의 부사적 규정어[10], 장소의 부사적 규정어[11]로 동사에 대한 통사론적 결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동사와 계층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나타나는 위치성분이 독어에서 그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틀구조(Rahmenbildung, Klammerbildung)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어순이 비교적 고정된 성분들[1-6]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순은 사전 언급 여하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그 밖의 성분들[7-11]에서도 이들의 성분이 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성분들이라면 확인될 수 있다.

Haftka는 기본어순에서의 위치성분들의 어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Haftka, 1981:709)

“술어군의 위치성분이 정동사에 대한 통사론적 결속이 밀접하면 할수록, 해당 위치성분은 문장 끝에 더욱 더 가까이 이동한다. 그러므로 해당 위치성분은 정동사가 둘째 자리와 첫째 자리에 나타날 경우 정동사로부터 더욱 더 멀리 떨어져서 나타난다.”

Hoberg의 비정향보족어는 Haftka에서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서 나타나는 “보다 긴밀한 술어군”(die engere Prädikatsgruppe)으로 파악하고 있다. Haftka의 “보다 긴밀한 술어군”은 어순에서 고정된 부분으로 정동사[0]와 부정형 동사[1], 본동사[2], 분리 전철[3], 술어보족어[4] 그리고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5-6]로 이루어지고 있다.(Haftka, 1981:709). 그러나 이러한 술어군들의 각 성분들은 한 문장에서 모두 함께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성분들은 결속도에 따라 중역의 어순의 끝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Die Jungen	haben[0]	einen Indianerfilm	sehen[2]	wollen[1]
Peter	hat[0]	lange an der Kasse	gestanden[2]	
Viele Kinder	haben[0]	den Film	kennenlernen[2]	wollen[1]
Alle	haben[0]	Gojko Mitič	an[3]-gestaunt[2]	
Gojko	ritt[0]	seinen Freundin	voran[3]	

술어보족어 [4] .....명사,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군으로 이루어진 술어보족어 [4]는 기본어순에서 동사복합체[3,2,1] 바로 앞 또는 문장의 끝 부분에 나타난다.

Ludwig hat [0] seinen Helden Trini[4] genannt[2]  
Trini wird[0] zu Beginn des Buches ein Junge[4] gewesen[2] sein[1]  
Das war [0] für das Bauernheer von großer Bedeutung[4]  
Trini war [0] während des Kampfes sehr tapfer[4]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 [5]-[6]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로 기능하는 “보다 긴밀한 술어군”에 속하는 전치사군이나 명사군은 술어 바로 앞이나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 이때 상대적 방향의 규정어[5]로서 화자의 관점으로부터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는 술어 바로 앞에서 부정형과 붙여쓰기가 가능하며, 절대적 방향 규정어[6]는 바로 그 앞에 위치하게 된다.

Er ließ[0] sich im Galopp ins Dorf[6] zurück[5]-tragen.  
Gonzales hat[0] unbehelligt von einer Nebenstraße aus zu seinem  
Quartier[6] zurück[5]-gelangen wollen.  
Trini ist[0] unbemerkt aus der Gärtnerei durch den Wald ins Dorf[6]  
hinüber[5]-gelaufen.

직접목적어 [8]

직접목적어는 “보다 긴밀한 술어군”[1-6]의 앞, 또는 문장의 가장 끝에 위치한다. 직접목적어는 전치사적 목적어, 4격, 3격 그리고 2격의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4격목적어만이 기본어순에서 이러한 목적어에 관계하는 장소의 부사적 규정어Ⅱ [7]을 통하여 보다 긴밀한 술어군과 분리될 수 있다.

간접목적어 [9]

기본어순에서 직접목적어[8] 바로 앞에 오며, 동사의 발렌츠에 따라서 전치사적 목적어, 3격, 4격 목적어의 형태로 나타난다. 간접목적어는 기본어순에서 결코 문장의 끝에 나타나지 않는다.

부사적 규정어Ⅱ [10]-[11]

장소, 양태,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적 규정어는 기본어순에서 목적어[9,8] 앞이나 보다 긴밀한 술어군[1-6] 앞 또는 문장의 끝에 위치한다.

장소의 부사적 규정어Ⅱ [7]

직접 4격목적어에만 관련되는 장소의 부사적 규정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의 신체의 일부분이나 소유물 또는 바로 앞 4격 목적어에 관련된 대상의 어떤 부분을 가르친다.

Großvater hat[0] unseren Kindern[9] Geld[8] geschenkt [6-1]  
 Die Kinder haben[0] einen Verkäufer[9] um einen Sittich[8] gebeten[6-1]  
 Die Kinder haben[0] in einer Zoohandlung[11] mit großem Eifer[10]  
 nach einem geeigneten Wellensittich[8] gesucht[6-1]  
 Die Kinder haben[0] mit viel Geduld[10] einen Vogel[9]  
 das Sprechen[8] gelehrt[6-1]  
 Vater hat[0] in einem Vogelbauer[11] eine Schaukel[8] angebracht[6-1]  
 Die Kinder haben[0] aus eigenem Antrieb[10] ihre Mutter[9]  
 aktiver Hilfe bei der Pflege[8] versichert[6-1]  
 Er hat[0] eine Mütze[8] auf dem Kopf[7] gehabt[6-1]  
 Er müßte[0] einen Blutfleck[8] an einen Hut[7] haben[6-1]

Haftka의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는 Hoberg의 정항보족어에 해당하며, 이러한 정항보족어는 중역에서 텍스트 맥락에 따라 유동적인 어순을 가진다. 그리고 술어보족어와 방향의 부사적 보족어는 Hoberg의 비정항보족어와 일치하며, 동사와의 “보다 긴밀한 동사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기” (von einer

engeren Verbindung) (Hoberg, 1997:1509) 때문에 고정된 어순을 가지고 있다.

Hoberg의 비정향보족어와 Haftka에서의 “보다 긴밀한 술어군”은 술어상의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동사와의 통사론적 및 의미론적 관계에서 가까운 결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다. 문장성분 중 동사와의 의미론적 관계에서 가까운 결속도를 나타내는 술어보족어와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는 정향보족어들보다 후위에 나타나며 또한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2.2 형태론적 기준

앞에서 설명한 비정향보족어는 보다 긴밀한 술어군으로서 정동사와의 의미론적 관계에서 가까운 결속도를 나타내며 중역의 왼쪽에 치우쳐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정향보족어는 오른쪽으로 치우치며 유동적이고, 주어와 3격보족어와 4격보족어는 특정 형태로 표현될 때 어순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Hoberg는 정향보족어를 그 형태에 따라 명사류적 정향보족어(Nominale Term-Komponente= K+nom)와 비명사류적 정향보족어(Nicht-nominale Termkomplemente= K-nom)로 나누고, 일반적으로 무표적 어순에서는 비명사류적 정향보족어가 명사류적 정향보족어 앞에 위치한다는 어순 규칙을 제시하였다.(Hoberg, 1997:1510)

제2단계의 어순 규칙

무표의 중역어순에서 비명사류적 정향보족어가 명사류적 정향보족어 앞에 위치한다.

K-nom » K+nom

1) 비명사류적 정향보족어(K-nom)(Hoberg, 1997:1510)

- 대용어(Anapher): er, sie, es, ihnen, ...
- 인칭지시어(Personendeixis): ich, du, uns, euch, ...
- man

보족어는 아니지만 이차적 단위로서 형식주어 es, 상관사 es, 어휘적 재귀 대명사를 비명사류적 정향보족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 형식주어: es gibt, es bedarf
- 상관사: es freut mich, daß...
- 어휘적 재귀대명사: sich schämen

## 2) 명사류적 정향보족어 (K+nom)

명사류적 보족어는 위에서 예시된 보족어를 제외한 나머지 보족어로 형성된다.

-명사, 지시대명사(dieser, das, ...), 부정형의 대용형(einer, jemand, ...), 양화 대용형(jeder, alle, ...) 그리고 이러한 대용형과 함께 형성된 구절

Blitzschnell schlug [ihm]-nom [der Beamte]+nom [die Pistole]+nom aus der Hand.

Es ist nur arg, daß [man]-nom [uns]-nom [das]+nom nicht von vorneherein klarmacht.

Hoberg에 의하면 K-nom>>K+nom의 어순 규칙은 의사소통적 구조화의 원리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보다 일반적인 규칙인 '주어진 것/알려진 것'>>'새로운 것/알려지지 않은 것'이 통사화된 것(Syntaktifizierung)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비명사류적 보족어의 일부인 대용형에게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기능 구조에서 어떠한 대용관계도 갖지 않은 그 밖의 비명사류적 단위들에게, 특히 이차적 단위들(형식주어 es, 상관사 es, 어휘적 재귀대명사 sich schämen)에게는 분명치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설명과 모순되는 것은 지시대명사가 '새로운 것/알려지지 않은 것'의 정보를 나타내는 단위들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명사류 또는 비명사류로 구별되는 형태론적 형식은 화용론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측면에서 어순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자연히 보다 일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문장의 테마-레마의 분절구조와의 상관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Hoberg, 1997:1511)

그러나 비명사류>>명사류의 어순규칙은 모든 정향보족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Hoberg는 명사적 주어와 전치사적 보족어에 특별한 어순관계를 부여하면서 이러한 보족어들은 형태론적 어순규칙인 “K-nom>>K+nom”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a) 명사류적 주어는 빈번히 다른 모든 비명사류적 보족어 앞에 위치한다.  
(Hoberg, 1997:1511)

Daß [einer von zehn Millionen]+nom [ihn]-nom nicht gut gefunden hatte, traf seine Eitelkkeit schwer, ...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주어의 일반적인 첫째 자리 규칙을 설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일정한 경우에 주어의 첫째 자리는 거의 허용할 수 없으며, 적어도 그것은 무표의 어순을 나타내지 않는다.

Da fiel **mir**[-nom] **ein Stein**[+nom] von der Seele,  
?Da fiel **ein Stein**[+nom] **mir**[-nom] von der Seele.

Der Grogger Toni hatte Grund genug, sich nach dieser Rede als Held und Herr der Stunde fühlen, denn von allen Seiten kam **ihm**[-nom] **stürmische Zustimmung**[+nom] entgegen.

?(...), denn von allen Seiten kam **stürmische Zustimmung**[+nom] **ihm**[-nom] entgegen.

명사적 주어가 특별히 동작주(Agens)의 역할을 할 경우와 고유명사로 나타날 때에는 다른 비명사류적 보족어보다 앞에 위치하게 된다.

Aber schon zwei Jahre später setzt **Nasser**[+nom] **ihn**[-nom] ab.  
Ich weiß es nicht, warum **Joachim**[+nom] **sich** [-nom] erhängt hat, (...).

(b) 전치사적 보족어 (Präpositivkomplement)는 일반적으로 문장의 끝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즉 전치사적 보족어는 명사류적이든 비명사류적이든 간에 다른 보족어보다 뒤, 문장의 끝 쪽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치사적 보족어는 두 번째의 어순규칙인 K-nom>>K+nom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Hoberg, 1997:1512, 정혜경, 2001:45)

Nämlich, so fest ich entschlossen war, ihm zu helfen (...), - fürchtete mich doch schrecklich davor, er könnte für seine Flucht **von mir ein Pferd** verlangen.

비명사류적 전치사적 보족어는 4격의 명사보족어 앞에도 위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적 보족어가 뒤에 오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고 볼 수 있다.

(...), und so bat ich Gott, er möge es doch einrichten, daß Jerome **kein Pferd von mir** verlangte.

그러므로 전치사적 보족어는 엄격한 의미에서 어순규칙 K-nom>>K+nom의 적용범위에 들지 않는다. 전치사적 보족어는 정항 보족어들 중에서 명백히 다른 종류의 형태 구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비정항보족어들 중에서 부사적 규정어가 가지는 특별한 위치와 비슷하다. 부사적 규정어는 상위의 어순원칙 K+TRM>>K-TRM이 다른 비정항보족어들과 같이 동일한 범위에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Hoberg, 1997:1512)

Ulrich Engel의 『Deutsche Grammatik』(1988년)에서 중역에서의 기본어순을 살펴보면, 상이한 보족어의 어순은 통사적 어순과 그의 표현형태에 좌우된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표현형태란 형태론적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Engel은 세 가지의 표현형태를 언급하고 있다.(Engel, 1988:322)

첫째, 중역에서의 세 보족어(주어, 4격보족어, 3격보족어)가 모두 비강세대 명사인 경우, 이들은 주어>>4격보족어>>3격보족어의 어순을 갖는다.

Damals habe ich es ihr erzählt.  
daß ich es ihr damals erzählt habe

둘째, 중역에서의 보족어가 한정적 한정사/대명사 (der, dieser, meiner 등) 또는 정관사나 한정사를 갖는 명사구(der, dies-, mein- 등)인 경우, 이들은 주어>>3격보족어>>4격보족어의 어순을 갖는다.

Damals hat Wanda ihrem Vater die ganze Geschichte erzählt.  
als Wanda ihrem Vater die ganze Geschichte damals erzählt hat

셋째, 중역에서의 보족어가 비한정적 대명사indefinite Pronomina (jemand, nichts)로서 실현되거나 부정관사 또는 해당 한정사를 갖는(einige, kein), 또는 무관사를 갖는 명사구에서는 역시 똑같이 주어>>3격보족어>>4격보족어의 어순을 갖는다.

Damals hat jemand allen Leuten unsinnige Geschichten erzählt.  
als jemand allen Leuten damals unsinnige Geschichten erzählt hat

이러한 상이한 표현형태, 즉 비강세대명사, 한정보족어 그리고 비한정보족어가 함께 쓰인다면, 이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어순으로 나타난다.  
비강세대명사>>한정보족어>>비한정보족어

이러한 한정보족어와 비한정보족어는 의미론적 기준 하에서 설명되기도 하며(Peter Eisenberg, 1999:394), 때로는 의사소통적 기준 하에서 한정보족어는 알려진 것으로 비한정보족어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다룰 수도 있는 것이지만, Engel은 그 표현형태의 한정사와 비한정사의 형태론적 특징에 주목한 것처럼 생각된다.

### 2.3 의미론적 기준

우리는 중역에서의 어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먼저 상위의 규칙으로서 범주적 기준을 들었다. 이러한 범주적 기준이란 정동사와의 의미론적 긴밀도에 따라 정항보족어와 비정항보족어로 나누었으며, 정동사와 보다 긴밀한 비정항보족어는 그 어순이 후위에 비교적 고정된 것이었다. 반면에 정항보족어는 형태론적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명사류나 비명사류나에 따라서 어순이 변화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비명사류적 정항보족어는 통사론적 기준에 따라서 그 어순이 거의 고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명사류적 정항보족어는 형태론적 기준만을 가지고 그 어순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일부 동사는 3격 보족어>>4격보족어의 어순을 무표의 어순으로 가지며, 그 역순인 4격보족어>>3격보족어는 테마-레마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반면에 4격보족어>>3격보족어의 어순이 무표적인 경우가 있다. 즉 동사 *vorziehen*, *unterordnen*은 4격보족어>>3격보족어의 어순을 요구하며, 이들을 무표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Ich habe **dem Kassierer das Geld** gegeben.

Karl hat **dem Kind das Buch** geschenkt.

Immer mehr Abiturienten ziehen **eine Lehre dem Studium** vor, (...).

Aber er hat **solche Freundschaften einem höheren Ziel** untergeordnet.

두 종류의 무표적 어순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순들이 일차적으로 통사론적으로 또는 의사소통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론적으로 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어순은 술어 여하에 따라 구상되는 논항들의 의미론적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Hoberg, 1997:1513) 즉 명사류적 정항보족어는 유생자질 *Belebtheit*의 여부(K+bel 또는 K-bel)에 따라서 어순이 결정되고 있다.

#### 제3단계의 어순규칙

무표의 중역어순에 있어서 유생자질을 갖는 보족어는 무생자질을 갖는 보

족어보다 앞에 위치한다.

K-bel>>K-bel

명사류적 정향보족어에 적용되는 이러한 세 번째 상위의 원칙에 의하여 주어(Subjekt)의 여러 가지 위치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주어가 유생자질의 [+belebt] 역할 소지자(AG, EXP, POSS, REZ)로서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항상 무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Sie stehen zufällig an einer Straßenecke und hören gerade, wie auf der anderen Seite [ein Mann]+bel [eine Schaufensterscheibe]-bel einschlägt.

그러나 유생자질의 보족어>>무생자질의 보족어라는 어순은 주어 도치의 상반된 현상도 파악할 수 있다. 즉 주어는 무생자질의 보족어라면 무표의 어순에서 후위에 위치한다. 반면에 유생의 역할(EXP)은 형태통사론적으로 3격 또는 4격보족어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할과 격의 분포는 일정한 자동사 군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동사를 가진 문장에서 주어는 무생의 자질을 가지며 도치된다.

(1) 3격 지배동사... passieren, widerfahren, zustoßen, unterlaufen, gelingen, zustehen, auffallen, einfallen, entfallen, gefallen, guttun, helfen, schaden, fehlen...

이러한 동사는 유생자질의 3격목적어를 지배하고, 어순은 3격목적어 [+belebt] >>주어 [-belebt]의 순서로 나타난다.

[Mir]+bel ist [etwas Merkwürdiges, Unangenehmes, Erfreuliches]-bel passiert.

Hoffentlich ist [den beiden]+bel [kein Unglück]-bel zugestoßen.

[Ihm]+bel fehlte [das Geld]-bel, um sich ein neues Auto zu kaufen.

(2) 4격 지배동사... interessieren, beeindrucken, erstaunen, überraschen,

beunruhigen, langweilen, stören, ärgern

이러한 동사는 유생자질의 4격목적어를 지배하고, 어순은 4격목적어 [+belebt] >>주어[-belebt]의 순서로 나타난다.

Hat [dich]+bel [das]-bel sehr überrascht ?

[Ihn]+bel ärgert [die Fliege]-bel an der Wand.

유생자질의 원칙(Belebtheitsprinzip)의 두 번째로 큰 영역은 특정한 3격과 4격 보족어와 결합하는 특정한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동사들은 수여/박탈 동사들(geben, schenken, senden, wegnehmen, stehlen, entziehen)과 전달 동사들(übermitteln, mitteilen, erzählen)로서 무표의 어순에서 유생자질의 3격 보족어가 앞에 오고 무생자질의 4격보족어가 뒤에 온다. (Hoberg, 1997:1516)

Wollen Sie [den Chefärzten]+bel [das private Liquidationsrecht]-bel nehmen?

Er hatte [seiner Frau]+bel [das Verbrechen]-bel kürzlich gestanden.

그러나 소수의 동사(예컨대 aussetzen, unterziehen)에서는 유생 자질의 4격보족어가 앞에 오고 무생 자질의 3격보족어가 뒤에 온다.

Verbände und Gewerkschaften hatten noch gestern vormittag vor dem Koalitionsgespräch dringend davor gewarnt, [die Rentner]+bel [neuen Belastungen]-bel auszusetzen.

3격과 4격 지배동사에 있어서의 유생자질의 원칙은 매우 뚜렷하여, 형태론적 격의 분포와 무관하게 유생자질의 보족어가 앞에 오고 무생자질의 보족어가 뒤에 온다.

Dürfen fünf Partner einer Gemeinschaft [dem sechsten Mitglied]3격+bel [ihren Willen]4격 -bel aufzwingen?

Oder darf einer [die anderen fünf]4격+bel [seinem Willen]3격-bel unterwerfen?

이것은 두 개의 4격을 지배하는 동사(lehren, abfragen, kosten)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구조에서의 어순관계는 의미론적 역할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에서의 유생자질의 여부는 어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유생자질을 갖는 보족어는 무생자질을 갖는 보족어 앞에 온다.

Die Schule hat den Bildungsauftrag, [den Schüler]+bel [die freie Meinungsäußerung]-bel zu lehren, sie zu pflegen und zu fördern.

이것은 두 개의 전치사적 보족어를 갖는 구조에서도 (예컨대 mit jemandem über etwas sprechen/verhandeln/diskutieren/sich einigen)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생자질의 여부는 어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Wir diskutieren [mit Freunden] [über Fragen der Kindererziehung].  
Er einigte sich [mit dem Kaufmann]+bel [über den Preis]-bel.

이와 같이 Hoberg에 의하면 3격, 4격보족어의 어순은 형태통사론적으로 또는 의사소통 구조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생자질의 여부에 의하여 의미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형태론적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었던 명사류적 격보족어의 무표적 어순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4 통사론적 기준

통사론적 기준이 적용되는 정향보족어를 부류별로 살펴보면, 세 가지의 부

분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비명사류적 보족어는 명사류적 보족어의 앞에 나타나며, 명사류적 보족어는 다시금 유생자질의 보족어가 무생자질의 보족어 앞에 온다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세 가지 부류(비명사류적 보족어, 유생자질의 보족어와 무생자질의 보족어) 내부에서의 격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는 바로 통사론적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Hoberg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Hoberg, 1997:1518)

#### 제4단계의 어순규칙

무표의 중역 어순에서 정향보족어들은 주어>>4격목적어>>3격목적어/2격목적어의 순서로 나타난다.

3격목적어와 2격목적어는 한 문장에서 동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위치 부류로 총괄될 수 있다. 그리고 Hoberg는 통사론적 기준을 마지막인 4단계에서 거론하는 것이 왜 유익한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통사론적 기준을 마지막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부분 어순(비명사류적 보족어의 어순, 명사류적 보족어의 어순)에 동일한 내적 선형 구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에 비명사류적 보족어에 대한 통사론적 기능을 너무 일찍 포착한다면 명사류적 보족어(3격>>4격보족어)와는 다른 선형 구조(4격>>3격보족어)를 추정해야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사류적 3격>>4격 보족어의 어순은 보다 높은 단계의 요인-유생자질의 원칙-에 의하여 설명된다면,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은 피할 수 있다고 한다.

(i) 비명사류적 4격>>3격의 어순은 명사류적 보족어의 어순과는 다르게 유생자질의 원칙(Belebtheitsprinzip)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격 형태(Kasusform)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한다. 비명사류 형태는 그 음질의 차이 들이 배어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음성학적으로 보다 약하고 무표적인 형태(주로 4격)가 보다 완전하고 유표적인 형태(3격과 2격) 앞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인식될 수 있다.(Hoberg, 1997:1519)

다음절의 형태가 2음절 형태 앞에 나타난다: sie/es>>ihnen

(ich erinnere) mich >> seiner/ihrer/eurer.

Also, ich bring [sie]akk [Ihnen]dat auf jeden Fall wieder, ...

어말모음의 형태가 어말자음의 형태보다 앞에 나타난다: sie>>ihm/uns/euch

단모음의 형태가 장모음의 형태보다 앞에 나타난다: dich/es>>mir/ihr/ihm

또한 es는 항상 다른 형태보다 앞에 올 수 있어서, 두 개의 4격이 올 경우 사물의 4격이 인물의 4격보다 앞에 올 수 있다: Er hat **es mich** so gelehrt.

대부분의 형태에서 원래 음성학적인 이유에서 사용된 4격>>3격의 어순은 모든 비명사류의 형태에 전용되고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ii) 명사류 4격>> 3격의 어순은 유생자질의 보족어 두 개나 혹은 무생 자질의 보족어 두 개가 나란히 나타날 경우 확실히 드러난다.

Er paßte [seine Kleidung]akk [der Jahreszeit]dat an.

Goethe erklärte: "Ich ziehe [die schändliche Warheit]akk [dem nützlichen Irrtum]dat vor."

이러한 4격>>3격의 어순에 대표적인 것은 일종의 대응관계 또는 배열관계를 표현하는 동사들로서 다음과 같다: gegenüberstellen, gleichstellen, anpassen, zuordnen, einordnen, unterordnen, vorstellen, vorziehen.

그러나 'ausspannen, entziehen, anbieten' 등의 수여 박탈 동사의 경우 3격>>4격 어순이 무표적으로 나타난다.

Sie hatte [ihrer Tante]dat [den Schmuck]akk ausgespannt.

Der Vorsitzende entzog [dem Redner]dat [das Wort]akk.

Ich halte es nur für einen verhängnisvollen Irrtum, [einem jungen Mädchen, das nicht ins Kloster gehen will,] dat [die Jungfrau Maria] akk als Vorbild anzubieten.

이러한 동사에서도 두 개의 유생자질 또는 두 개의 무생자질이 나타날 수 있지만, 3격-4격의 어순이 무표의 어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유생자질이 먼저 오고 다음에 무생자질의 보족어가 온다는 규칙이 우선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네 번째의 어순규칙인 통사론적 기준이 가장 취약한 원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통사론적 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거의 허용 가능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사류적 보족어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명사류적 보족어에는 결코 적용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통사론적 기준을 마지막인 4단계에서 적용함으로써 비명사류의 보족어의 어순을 주어-4격보족어-3격보족어로 정하고, 명사류 보족어의 어순도 동일하게 주어-4격보족어-3격보족어로 정하고 있다. 이로써 비명사류와 명사류 보족어의 어순에 동일한 내적 선형 구조를 부여할 수 있다. 만약에 명사류 보족어가 3격-4격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다 높은 단계인 유생자질의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모순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3. 정보구조

중역의 어순에서 정보구조를 이상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면, 문법적 조건을 먼저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문법적 구조를 제외한 다른 구조가 정보구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자는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먼저 정보구조와는 별개의 기본어순으로부터 출발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탈현상들을 테마-레마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발화체에서 일반적으로 먼저 언명된 것 또는 전제된 것에 대하여 일정한 실제의 발화상황에서 전달가치가 높은 것이 진술되고 있다. 따라서 대화대상이 된 테마와 그에 대해서 언급된 레마가 구별되고 있다. 한 발화체는 바로 테마에 레마가 연결되어 구성되고 있다. 또한 한 발화체는 테마와 레마로 분절됨으로써 전달의 관점에서 하나의 정보구조 또는 의사소통 구조라는 언어층위가 형성되고 있다. 테마로는 보통 이미 알려진 것 또는 사전에 언급된 것이, 레마는 새로운 것과 미지의 것이 선택되고 있다. (임환재, 2000:196)

독어에서의 테마와 레마구조는 본질적으로 어순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독어문장에서 동사성분들은 틀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테마-레마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비동사적 성분들인 보족어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전달가치 (Mitteilungswert) 여하에 따라 서로 연결된다. 이때 한 성분들의 전달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성분들이 동사에 밀접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는 동사와의 통사론적 또는 의미론적 긴밀도에 따른 텍스트 맥락에서의 자동적인 레마규칙을 살펴보기로 한다. (Haftka, 1981:741 이하)

한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성분이 부정대명사(Indefinitum: etwas, jemand, irgendwer, man, niemand, nichts)라면, 정동사가 그 문장에서 전달가치가 가장 높은 레마가 된다.

(Er schwieg,es gab noch mehr zu sagen,) aber eigentlich **ging** das niemandem etwas **an**.

(...aber wenn sie erzählt, daß er's gewesen ist,) dann **passiert** was.

(“Achtung!”) Irgendwer **meldete** irgendwem.

한 문장에서 직접 4격목적어가 새롭게 도입되었다면, 이러한 4격보족어는 간접목적어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달가치가 제일 높은 레마가 된다.

Lisa schenkte einem bärtigen Zollbeamten **eine Tafel Schweizer Schokolade**.

Im Operationssaal zog ein Arzt einer Frau **Scheibensplitter** aus einer Wunde.

\*Im Operationssaal zog ein Arzt einer Frau Scheibensplitter **aus einer Wunde**.

Er hat seinen Bruder **das Radfahren** gelehrt.

\*Er hat **seinen Bruder** das Radfahren gelehrt.

Der Krankenwagen hat auf schnellstem Wege **eine Frau** in

Krankenhaus gebracht.

문장에서 4격목적어가 새롭게 도입되지 않은 테마일 경우,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가 전달가치가 제일 높은 레마가 된다.

Diese Scheibensplitter hat ein Arzt einer Frau **aus einer Wunde** gezogen.

Der Wagen hat die Frau auf schnellstem Wege **ins Krankenhaus** gebracht.

Der Kriminalist ist einem Verdächtigen **in ein Haus** gefolgt.

In dem Film sind zwei Jäger **in eine tiefe Schlucht** gesprungen.

직접 4격목적어와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새롭게 도입되지 않을 경우, 새롭게 도입된 직접목적어 중에서 3격, 2격, 전치사적 목적어가 전달가치가 제일 높은 레마가 될 수 있다.

Damals hat der Forscher einer Schulklasse **von einer Expedition** erzählt.

Der Wirt bezichtigte vor Gericht einen Gast **der Gewalttätigkeit**.

Er hat sich nach kurzem Nachdenken **vieler Einzelheiten** erinnert.

Er ist **einem Verdächtigen** dorthin gefolgt.

새로 도입된 직접목적어나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 도입된 간접목적어가 레마가 될 수 있다.

Die Schokolade schenkte Lisa **einem Zollbeamten**.

Er hat diese Kunst **seinen Bruder** gelehrt.

\* Er hat seinen Bruder **diese Kunst** gelehrt.

Der Forscher hat **mit einer Schulklasse** darüber gesprochen.

새로 도입된 목적어나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가 없다면, 문장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장소, 양태, 수단의 부사적 규정어가 레마가 될 수 있다.

Vorläufig sät er sein Getreide **mit der Hand** ein.

(Kontextsituation: Der Großvater hat den Kahlwicht belogen.) Der Kahlwicht mustert Großvater **mit zersengenden Blicken**.

(Ich sah gerade noch,) wie eine Gestalt **hinter einer Lehmhütte** verschwand.

Die Partisanen verbargen diese Waffen **in einer Höhle**.

술어가 술어보족어와 계사로 구성된다면, 명사적 술어보족어가 일반적으로 전달가치가 가장 높은 레마가 될 수 있다.

Angela Davis war **Delegierte des Frauenkongresses**.

Er ist durch großen Fleiß **ein sehr guter Schüler** geworden.

Wir nennen ein kleines Mädchen **Moritz**.

Gestern haben sie einen guten Schüler **zum Gruppenratsvorsitzenden** gewählt.

그러나 형용사적 술어보족어와 전치사적 술어보족어가 레마인가 아닌가는 그렇게 분명 하지만은 않다. 4격, 2격, 전치사적 목적어가 레마적 성격을 띄며, 동사적 술어 통용규칙에 따라 레마가 될 때, 형용사적 술어보족어는 비강세를 띠게 된다.

Der Junge ist **auf einen großen Teddy** stolz.

Er ist **der Körperverletzung** schuldig.

Wir mußten einen Kollegen **auf einen Fehler** aufmerksam machen.

Die Betriebsleitung hat **einen Aufruf** bekanntgemacht.

여기에서 형용사적 술어보족어의 레마화는 예컨대 정보를 교정하는 기능

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Du behauptest, er sei der Körperverletzung angeklagt. Das Gericht hat aber schon festgestellt:) Er ist der Körperverletzung **schuldig**.

그러나 형용사적 술어보족어 또는 전치사적 술어보족어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도입된 성분이라면, 이러한 술어보족어가 레마가 된다.

Deshalb sind alle Schüler der 3a **sehr fleißig**.

Das kann für die Schüler **von großer Bedeutung** sein.

Haftka에 의하면 한 문장에서 전달가치가 가장 높은 성분은 4격목적어에 대한 술어보족어와 명사적 술어보족어이며, 그 다음은 직접목적어 중에서 4격명사라고 한다. 그러나 형용사적 술어보족어와 전치사적 술어보족어는 모든 다른 성분들이 이미 언급되었을 경우에만 레마화될 수 있다. 따라서 술어군 중에서 첫 번째로 레마 가능성이 큰 성분은 명사적 술어보족어이며, 둘째는 직접 4격목적어이며, 셋째는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이며, 넷째는 직접목적어 중에서 3격, 2격, 전치사격이며, 다섯째는 간접목적어 중에서 3격, 전치사격, 4격목적어이며, 여섯째는 장소, 양태, 수단의 부사적 규정어이며, 일곱 번째는 형용사적 술어보족어 또는 전치사적 술어보족어가 된다. (Haftka, 1981: 745)

한 문장에서 술어군에 속하는 어떠한 문장성분( 목적어, 부사적 규정어, 술어보족어)도 새롭지가 않다면, 새로 도입된 주어가 레마가 될 수 있다. 이때 주어는 위치가 고정된 부사적 규정어 바로 앞이나 문장 끝에 나타날 수 있다.

Die Splitter hat ihr **ein Arzt** aus dieser Wunde gezogen.

In den Film sind **zwei Jäger** in diese Schlucht gesprungen.

또한 주어는 상관사 es를 통하여 첫째 자리를 할애하고, 중역에서 강조되어 레마가 될 수 있다.

Es haben **mehrere Kinder** auf dem Bahngelände gespielt.  
Es bedient Sie **Kollege Müller**.

그러나 주어가 맥락에서 이미 언급된 명사의 부분 집합이어서 테마적인 경우, 동사적 술어가 전달가치가 높은 레마가 될 수 있다.

(Das verunglückte Flugzeug hatte 98 Personen an Bord.) 14 Menschen **überlebten** die Katastrophe.

주어와 술어군에 속하는 모든 문장성분이 텍스트 맥락에 따라 앞에서 언급된 테마적 성분들이라면, 동사적 술어, 즉 술어에서 의미를 갖는 성분들인 분리전철, 부정형 동사 그리고 본동사 등이 전달가치가 높은 레마가 될 수 있다.

So kommt er auf mich **zu**-gesprungen.  
Morgen wirst du mich schon **verprügeln**.  
Der Stahlhelm **wackelt**. Unter dem Stahlhelm **schimpft** es.

한 문장에서 모든 성분들이 다 앞에서 언급된 테마적 성분들이라면, 끝으로 시간과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 규정어와 수동구문에서의 동작주군이 레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Auf der Golden-Gate-Brücke in San Franzisko... ist der mir weggelaufen...”) Das war **vor zwei Jahren**.  
(“Ich kann nicht mitspielen.”) Ich komme **geschäftlich**.  
Die Löscharbeiten wurden **von Fliegern des Avioforstschutzes** durchgeführt.

한 문장에서 전달가치가 높은 레마가 어떠한 성분인가는 인식론적 범주에 따라 알려진 것인가 아닌가 또는 언어적 맥락과 결부하여 새로운 것이냐 새롭지 않은 것이냐의 이중의 이분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맥락과 더불어 한 성분들의 전달가치는 일반적으로 동사와 밀접하게 연결되면 될수록 그만큼 더 높아진다. 다만 문법적 층위에서의 “보다 긴밀한 술어군”은 정보구조에 있어서는 전달가치가 떨어지지만, 형용사적 또는 전치사적 술어보족어와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는 전달가치와는 무관하게 후위에서 고정된 어순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 문장에서 전달가치가 가장 높은 성분은 4격목적어에 대한 술어보족어와 명사적 술어보족어이며, 그 다음은 4격의 직접목적어라고 한다. 셋째는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이며, 넷째는 직접목적어 중에서 3격, 2격, 전치사격이며, 다섯째는 간접목적어 중에서 3격, 전치사격, 4격목적어이며, 여섯째는 장소, 양태, 수단의 부사적 규정어이며, 일곱 번째는 형용사적 술어보족어 또는 전치사적 술어보족어가 된다. 여덟 번째는 주어이며, 아홉 번째는 의미를 가지는 동사성분들로서 분리 전철, 부정형 동사 그리고 본동사 등이다. 끝으로 시간과 원인의 부사적 규정어와 수동문에서의 동작주군이 레마가 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

#### 4.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중역의 어순과 정보구조를 두루 살펴보았다. 중역에서 보족어의 어순을 이상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다면, 먼저 문법적 조건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문법적 구조를 제외한 다른 구조가 정보구조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양자는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방법론적 접근방식으로서 먼저 정보 구조와는 별개의 기본 어순으로부터 출발하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탈현상들을 의사소통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중역의 어순에서 먼저 상위의 규칙으로서 범주적 기준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범주적 기준이란 정동사와의 의미론적 긴밀도에 따라 정향보족어와 비정향 보족어로 나누었으며, 정동사와 보다 긴밀한 비정향보족어는 그 어순이 틀구조의 후위에 비교적 고정된 것이었다. 반면에 정향보족어는 형태론적 기

준에 따라서 그것이 명사류나 비명사류냐에 따라서 어순이 변화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비명사류적 정향보족어는 의사소통 원리에 의하여 어순이 틀구조의 전위에 거의 고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명사류적 정향보족어는 형태론적 기준만을 가지고 그 어순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생자질의 여부에 의해서 유생자질의 보족어가 무생자질의 보족어보다 앞쪽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한 통사론적 기준을 마지막인 4단계에서 적용함으로써 비명사류의 보족어의 어순과 명사류 보족어의 어순을 동일 하게 주어-4격보족어-3격보족어로 정하고 있다. 이로써 비명사류와 명사류 보족어의 어순에 동일한 내적 선형 구조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법적 기준에 의해서 어순은 고정된 어순과 유동적인 어순으로 나뉘고 있다. 어떠한 성분이 고정된 어순이며 어떠한 성분이 유동적인 부분인가는 독어 통사구조와 정보구조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유익하고도 실용적인 단면을 제공해 준다.

틀구조 내부에서의 기본어순은 맥락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텍스트 맥락과 상황에 변화를 겪게되면 이러한 기본구조는 테마화되고 또한 레마화될 수 있다. 한 문장에서 전달 가치가 높은 레마가 어떠한 성분인가는 인식론적 범주에 따라 또는 언어적 맥락과 결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텍스트 맥락과 더불어 한 성분들의 전달가치는 일반적으로 정동사와 통사론적으로 또는 의미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문장성분일수록 그만큼 더 높아진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술어보족어와 방향의 부사적 규정어는 문법구조와 정보구조가 상이한 부분으로 맥락을 중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순에서 나타난 문법적 구조와 정보구조는 매우 긴밀하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또한 발화체의 전달기능을 나타내는 전체적인 메카니즘을 고려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임환재, 텍스트 결속성(1)-동위소와 전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인문논집, 제42집. 1997.  
 임환재, 독어 텍스트에서의 테마-레마의 분절구조. 텍스트언어학 8, 한국 텍스트 언어학회 편. 서울 2000.

- 정혜경, 독어의 중역 어순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울 2001.
- Beneš, Eduard(1973), Thema-Rhema-Gliederung und Textlinguistik. In: Sitta, H./Brinker, K.(Hrsg.): Studien zur Texttheorie und zur deutsche Grammatik. Düsseldorf 1973 (=Sprache der Gegenwart 30), S.42-62.
- Daneš, F.(1974),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In: F. Daneš (Hrsg.) 1974, S. 106 -128.
- Daneš, F. (Hrsg.) (1974),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Prag.
- Eisenberg, P.,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Band 2. Stuttgart 1999.
- Engel, U., Deutsche Grammatik, Heidelberg 1988.
- Eroms, H. -W. Funktionale Satzperspektive. Tübingen 1986.
- [Grundzüge 1981 ],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Von einem Autorenkollektiv unter der Leitung von Karl Erich Heidolph, Walter Flämig und Wolfgang Motsch. Berlin 1981.
- Gülich, E./W. Raible (1977), Linguistische Textmodelle. Grundlagen und Möglichkeiten, München.
- Haftka, B.(1981), Reihenfolgebeziehungen im Satz(Topologie). In: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Von einem Autorenkollektiv unter der Leitung von K.E. Heidolph/W. Flämig/W. Motsch, Berlin, S. 702-764.
- Hoberg, U.(1997), Die Linearstruktur des Satzes. In: Zifonun, G./ L. Hoffmann/ B. Strecker,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 Hofmann, U., Zur Topologie im Mittelfeld: Pronominale und nominale Satzglieder. Tübingen 1994.
- Jacobs, J.(1984), Funktionale Satzperspektive und Illokutionsemantik. In: Linguistische Berichte 91.
- Jacobs, J.(Hrsg.)(1992), Informationsstruktur und Grammatik. Linguistische Berichte, Sonderhefte 4/1991-2. Opladen.
- Lernerz, J., Zur Abfolge nominaler Satzglieder im Deutschen. Tübingen 1977.
- Lötscher, A.(1984), Satzgliedstellung und funktionale Satzperspektive. In: G. Stickel(Hrsg.): Pragmatik in der Grammatik. *Düsseldorf*.
- Lutz, L.(1981), Zum Thema "Thema". Einführung in die Thema- Rhema-Theorie, Hamburg.
- Sommerfeldt, K.-E./ Günter Starke, Einführung in die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übingen 1998.
- Reis, M. (Hrsg.)(1993), Wortstellung und Informationsstruktur. Tübingen.

Welke, K.(1993), Funktionale Satzperspektive, Münster.

Zemb, J.M.(1972), Satz-Wort-Rede. Semantische Strukturen des deutschen Satzes, Freiburg/Basel/Wien.

Zifonun, G./ L. Hoffmann/ B. Strecker,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Berlin 1997.

## Zusammenfassung

### Satzgliedstellung und Informationsstruktur im Mittelfeld des Deutschen

Im, Hwan-Jae(Korea Uni.)

In der vorliegenden Arbeit handelt es sich um die Satzgliedstellung und die Informationsstruktur im Mittelfeld des Deutschen.

Für die erfolgreiche Beschreibung der Satzgliedstellung und der Informationsstruktur sollte man zunächst die grammatischen Bedingungen der Satzgliedstellung genau untersuchen. Dann kann man erwarten, dass die Subtraktion der grammatischen Bedingungen die kommunikativ relevante Struktur der Satzgliedstellung bloßlegt. Beides ist aber so verzahnt, dass als erfolgversprechender Vorgehensweg nur bleibt, von einer kommunikativ neutralen Grundreihenfolge der Stellungsglieder auszugehen und alle Abweichungen davon als kontextuell gesteuerte Maßnahmen der Informationsstruktur zu deuten.

Die grammatischen Bedingungen der Stellungsglieder im Mittelfeld haben gemäß dem kategorialen Status, den morpho-syntaktischen Faktoren und der semantischen Rolle die Grundreihenfolge bestimmt. Und nach diesen grammatischen Bedingungen wird die Grundreihenfolge in die bewegliche und die feste Anordnung geteilt. Die feste bzw. bewegliche Anordnung der Stellungsglieder ist für die Betrachtung der syntaktischen und kommunikativen Struktur im Deutschen von großer Bedeutung.

Die Grundreihenfolge im Mittelfeld bezieht sich nicht auf den Kontext. Sie ist deshalb merkmalslos. Aber wenn diese Folge aufgrund der Veränderungen des Kontextes und der Situation markiert wird, kann diese Grundreihenfolge thematisiert und rhematisiert werden. Wie die Thema-Rhema Struktur für den Ausdruck des Mitteilungswertes in einem Satz aussieht, wird von dem kognitiven Gesichtspunkt und dem sprachlichen Kontext entschieden. Mit diesem Textkontext spielt die

engere Verbindung zu dem finiten Verb für den Mitteilungswert eine große Rolle. Deshalb kann man sagen: Je enger die Stellungsglieder syntaktisch und semantisch an dem finiten Verb sind, desto höher wird ihr Mitteilungswert. Und wegen der engen Beziehungen zwischen der grammatischen Struktur und der Informationsstruktur haben wir versucht, die beiden Strukturen in der gegenseitigen Abhängigkeit zu berücksichtigen.